



몰랐던, 이제 알아야 하는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어휘 2 단계

1 비문학(읽기·쓰기)

Day 01 어휘 플러스

본문 13쪽

1 정독 2 남독

10 분 테스트

본문 14쪽

01 역동적 02 기하학적 03 본질 04 학문
05 발전 06 예술 07 추상화
08 박람회 09 보편적 10 ② 11 ①
12 장단 13 ③

10 사전에 올려진 단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일정한 사항이 장부나 대장에 올려지다.'를 뜻하는 '등재되다'가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내재되다'는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탐재되다'는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이 실리다.'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유 의지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서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서다.'를 뜻하는 '입각하다'가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② '입건하다'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입법하다'는 '법률을 제정하다.'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에는 많은 책을 읽는 독서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많이 읽음.'의 의미를 갖는 '다독'이 적절하다. ㉡에는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독서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의 의미를 갖는 '정독'이 적절하다.

Day 02 어휘 플러스

본문 17쪽

1 결재 2 결제

10 분 테스트

본문 18쪽

01 오염 02 결정 03 상품 04 비용
05 재원 06 희소성 07 수요 08 생산자
09 폐기 10 공급 11 ④ 12 ③

07 문맥상 한국 음식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뜻하는 '수요'가 적절하다.

08 재화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주체는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인 '생산자'이다.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이다.

11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 오답 확인 |

- ① '매물(每物)'의 뜻이다.
② '잡화(雜貨)'의 뜻이다.
③ '재물(財物)'의 뜻이다.
⑤ '통화(通貨)'의 뜻이다.

12 '내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주거나 바치다.'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와 뜻이 유사한 단어는 '돈을 내어 주다, 또는 값을 치르다.'의 뜻을 가진 '지불하다'이다.

| 오답 확인 |

- ① '가불하다'는 '받기로 한 임금이나 용돈 등을 미리 받다.'의 뜻이다.
② '결재하다'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의 뜻이다.
④ '책정하다'는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하다.'의 뜻이다.

Day 03 어휘 플러스

본문 21쪽

1 ② 2 ②

10 분 테스트

본문 22쪽

01 사회적 02 내력 03 위반 04 ㉠
05 ㉡ 06 ㉢ 07 인증 08 위탁
09 판례 10 탈세 11 ① 12 ③
13 ② 14 ②

08 문맥상 빈칸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시설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는 내용이므로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을 뜻하는 ‘위탁’이 적절하다.

10 문맥상 빈칸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을 뜻하는 ‘탈세’가 적절하다.

11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버렸다는 내용이므로, ‘내다 버리다.’의 뜻인 ‘유기하다’가 적절하다.

12 공적 용도로 쓰여야 하는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는 내용이므로,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이기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쓰이다.’를 뜻하는 ‘유용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정부가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영화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뜻하는 ‘정책’이 적절하다.

14 ‘돌리다’는 ‘방향을 바꾸다, 생각이나 노선을 바꾸게 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다.’를 뜻하는 ‘전환하다’이다.

Day **04** 어휘 플러스 본문 25쪽

1 아름	2 알음	3 얹
------	------	-----

IO 본 테스트 본문 26쪽

01 각성	02 자의식	03 ㉠	04 ㉡
05 ㉢	06 ㉣	07 자책하지	
08 회피하는	09 ×	10 ×	11 ㉤
12 ㉥	13 ㉦		

09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을 뜻하는 ‘알음’이 적절하다.

10 ‘아는 일.’을 뜻하는 ‘얹’이 적절하다.

12 ‘성격이 감정이나 생각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비사교적인.’을 의미하는 ‘내향적’과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는 ‘감정이나 생각을 겉으로 잘 드러내는.’을 뜻하는 ‘외향적’이다.

| 오답 확인 |

①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것).

②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

④ 힘을 합해 서로 도우는 (것).

13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

| 오답 확인 |

① ‘갈망’의 뜻이다.

② ‘희망’의 뜻이다.

④ ‘욕심’의 뜻이다.

Day **05** 어휘 플러스 본문 29쪽

1 ㉡	2 ㉠
-----	-----

IO 본 테스트 본문 30쪽

01 함구령	02 도모	03 권위	
04 논리적	05 직감적	06 비판적	07 계발
08 소신	09 ㉡	10 ㉢	11 ㉠
12 ㉤			

04 객관적인 근거를 내세워 판단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므로, ‘생각이나 추론이 이치에 맞는 (것).’을 뜻하는 ‘논리적’이 적절하다.

06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뜻하는 ‘비판적’이 적절하다.

10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를 뜻하는 ‘밝히다’이다.

| 오답 확인 |

③ ‘타진하다’는 ‘남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미리 살피다.’를 뜻한다.

11 ‘친화적’은 ‘서로 뜻이 맞거나 조화를 이루는 성질.’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제시된 문장에서 언론과 거대 기업이 ‘서로 뜻이 맞는’ 관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아~5 종합 문제

본문 32쪽

- | | | | |
|-------------|-------|------|-------|
| 01 지위 | 02 재화 | 03 ④ | 04 도모 |
| 05 자책 | 06 폐기 | 07 ④ | 08 ⑤ |
| 09 수용자, 결정자 | | | |

03 ‘각성’은 ‘깨어 정신을 차림.’, 또는 ‘깨달아 앎.’을 뜻한다.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을 뜻하는 단어는 ‘반성’이다.

07 문맥상 밑줄 친 부분에는 물건을 산 값을 치러 거래를 끝맺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는 ‘결제’가 적절하다.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에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는 말이다.

08 ‘결정하다’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다.’를 뜻하는데, 문맥상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하다.’를 뜻하는 ‘책정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의 수용자,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의 결정자가 된다.

10 ‘경사면’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면.’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같은 뜻의 ‘비탈면’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면’은 ‘물체의 뒤쪽 면.’,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12 제시된 글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게 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20%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은 ‘감염’, ㉡은 ‘염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감염’은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을 의미하고, ‘전염’은 ‘병이 남에게 옮음.’을 의미한다. 감염된 환자의 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염증’이다.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을 의미한다.

Day 07 어휘 플러스

본문 39쪽

- | | | |
|------|------|------|
| 1 보전 | 2 복원 | 3 보존 |
|------|------|------|

10 분 테스트

본문 40쪽

- | | | | |
|--------|-------|--------|-------|
| 01 식생 | 02 녹지 | 03 산림 | 04 천적 |
| 05 맹금류 | 06 생태 | 07 자연사 | |
| 08 악순환 | 09 분포 | 10 ② | 11 ② |

Day 06 어휘 플러스

본문 35쪽

- | | |
|------------|-----------|
| 1 물리적, 물리적 | 2 화학적, 화학 |
|------------|-----------|

10 분 테스트

본문 36쪽

- | | | | |
|--------|-------|-------------------|-------|
| 01 전파 | 02 침식 | 03 자원 | 04 분비 |
| 05 생성 | 06 손상 | 07 지질 | 08 점성 |
| 09 분화구 | 10 ② | 11 (1) 반사적 (2) 분출 | |
| 12 ① | | | |

07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노화에 따른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자연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자연사’는 ‘노쇠하여 자연히 죽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08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니 출산률이 낮아져 인구가 감소하는 나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악순환’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악순환’은 ‘나쁜 현상이 반복하여 일어나거나 다른 나쁜 현상으로 이어짐, 또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

09 ‘분포’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 ‘동식물의 지리적인 생육 범위.’를 의미한다. <보기>에서는 식물이 해안가에 넓게 퍼져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분포’가 적절하다.

10 이 글에서는 문화재 관리의 개념에는 ‘복원’과 ‘보존’이 있다고 하면서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다시 만드는’ ‘복원’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보존’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보존’을 하면 탑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 없이 하는 ‘복원’은 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11 ㉔의 ‘훼손되다’는 ‘헐리거나 깨져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㉕의 ‘훼손되다’는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Day 08 어휘 플러스 본문 43쪽

1 두꺼운 2 두터운

10 분 테스트 본문 44쪽

01 악의적	02 상대적	03 공식적	04 지경
05 현상	06 불법적	07 이례적	08 완화
09 충족되다	10 존엄성	11 ㉔	12 ㉕
13 ㉖	14 ㉗	15 ㉘	

11 ‘바깥이 춥다.’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두껍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12 ‘과감하다’는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다.’라는 의미로, ‘과감하게 행동할’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13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는 의미이므로, ‘두터운 은혜’로 쓰일 수 있다.

14 ‘상쇄하다’는 ‘상반되는 것에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므로, ‘상쇄한’을 넣어 ‘이번 사건으로 과거 불행했던 일을 없어지게 만든 셈이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15 제시된 글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누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누진적’은 ‘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Day 09 어휘 플러스 본문 47쪽

1 출중하다 2 누출 3 유출되다

10 분 테스트 본문 48쪽

01 작은	02 헤아리며	03 구별	04 반사
05 파장	06 관성	07 ①	
08 수행했다	09 지수	10 지표	11 ④

04 ‘반사’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쳐서 나아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을 의미한다.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 눈을 비추어 눈을 뜰 수 없다는 의미이다.

05 ‘파장’은 물리 용어로는 ‘파동에서,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충격적인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06 ‘관성’은 ‘물체가 다른 힘을 받지 않는 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라는 의미이다. 차가 급정거할 때 계속 운동하려는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07 ‘변환하다’는 ‘달라져서 바뀌다. 또는 다르게 하여 바꾸다.’의 의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연료를 통해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다르게 하여 바꾼다는 의미이므로, ‘바꾼다’가 적절하다.

11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곳에 묻혀 있던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이 대기 중으로 내보내진다.’라는 의미이므로 ‘비출되어 있는 것이 내놓아지다.’를 의미하는 ‘방출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노출되다: 겉으로 드러나다.
- ② 창출되다: 전에 없던 것이 처음으로 생각되어 지어내어지거나 만들어지다.
- ③ 반출되다: 운반되어 나간다.
- ⑤ 퇴출되다: 내어놓고 나가게 되다.

01 설명	02 삼단 논법	03 논증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연역	14 기다림	15 예시
16 구분			

04 ㉠은 씨름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에 해당한다.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다.

05 ㉡은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의 예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예시'에 해당한다.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06 ㉢은 '꽃'의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해당한다. 분석은 복잡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을 세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07 ㉣은 '시'를 '형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에 해당한다. 구분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08 ㉤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원인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에 해당한다. 인과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의 관계를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10 제시된 설명은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12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비교'이고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대조'이다.

13 (가)에는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대전제가 제시되어 있고,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도 관찰에 해당한다.'라는 소전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15 ㉠의 앞부분에 제시된 SPF와 숫자가 자외선 B의 차단 정도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6 ㉣에서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01 분포	02 관성	03 지표	04 완화
05 궁극적	06 방출되다	07 충족되다	
08 ㉤	09 ㉡	10 ㉢	11 ㉠

05 '근본적'은 '근본을 이루거나 근본이 되는 (것)'.의 의미이고, '결정적'은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 바뀔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 '일의 결과를 결정지를 만큼 중요한 (것)'.의 의미이다.

06 '누출되다'는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오다.', '비밀이나 정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다.'의 의미이고,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 '동물이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어 항문으로 내보내지다.'의 의미이다.

07 '충원되다'는 '인원수가 채워지다.'의 의미이고, '충만되다'는 '한껏 채워져 가득해진 듯하다.'의 의미이다.

08 '식별하다'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알아보다.'라는 뜻이다. 어려운 문구 따위를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해독'이다.

09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는 의미이므로 '염증'이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① 피지: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반유동성 기름 물질.

③ 전염: 병이 남에게 옮음.

④ 구토: 먹은 음식물을 토함.

⑤ 노폐물: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

10 '공존'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이라는 의미로 면역계가 어떻게 외부 물질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하고 있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존속'으로, 제시된 문장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가)에서는 '면역 반응'의 뜻이 풀이되고 있으므로 '정의'가 쓰였다. 또한 인체는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데 이들이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인과'가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 (다)에서는 면역계가 장내 미생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생물이 장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가 쓰였다. (라)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생기는 반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가 쓰였다.

2 문학

Day
11
어휘 플러스
본문 59쪽

1 가림주구
2 탐관오리

10 분
테스트
본문 60쪽

01 김
02 탐관오리
03 백골난망
04 인정
05 가혹
06 위쪽
07 임
08 호미
09 산버들
10 ①
11 ①
12 ②
13 사모
14 ④

14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뜻으로, ‘판단하다’의 의미가 있다. ④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므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의 뜻인 ‘여기다’가 자연스럽다.

Day
12
어휘 플러스
본문 63쪽

1 감상
2 감동
3 감화

10 분
테스트
본문 64쪽

01 모자람
02 거듭
03 올리다
04 암초
05 윗목
06 외세
07 외지
08 경이
09 ④
10 ③
11 ④

04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의 의미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문장 모두 ‘암초’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5 문맥상 ‘아랫목’과 뜻이 반대인 말이 와야 하므로,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에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을 뜻하는 ‘윗목’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06 나라를 침략하는 주체는 나라 밖의 세력이므로, ‘외국의 세력.’을 뜻하는 ‘외세’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07 문맥상 자기가 사는 마을의 밖을 뜻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자기가 사는 곳 밖의 다른 고장.’을 뜻하는 ‘외지’가 적절하다.

08 자연의 섭리를 보는 시선으로는 ‘놀랍고 신기하게 여김.’을 뜻하는 ‘경이’가 적절하다.

10 ‘감화’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을 뜻하는 말이다. 문맥상 ‘마음에 느낀 바.’를 뜻하는 ‘소감’이 적절하다.

11 ㉠은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이다.

| 오답 확인 |

①, ②, ③, ⑤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Day
13
10분 테스트
본문 70쪽

01 ㉠
02 ㉡
03 ㉢
04 ×
05 ○
06 형상화
07 정서
08 ○
09 ○
10 ①
11 ②
12 ④

04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라고 한다.

05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 주인공이 1인칭 서술자 ‘나’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을 말한다.

06 ‘수줍음’은 추상적 감정으로, ‘발장게 상기된 볼’은 누군가가 ‘수줍음’을 느낀 모습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08, 09 이 시는 사랑하는 임이 나를 떠날 때에는 죽는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이 떠날 때 매우 슬플 것이라는 의미가 반어적으로 담긴 시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상황 앞에서 느끼는 화자의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12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을 ‘나’로 지칭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Day 14 어휘 플러스

본문 73쪽

1 근 2 점 3 필지

10 분 테스트

본문 74쪽

01 방아 02 봉당 03 축대 04 환곡
05 무게 06 돈 07 그림 08 분량
09 ① 10 ② 11 ③ 12 ⑤

04 '환곡'은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을 뜻하는데, 조선 후기의 부정한 관리들이 이를 수탈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09 '상이군인'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뜻의 단어로 '백의용사'가 있다. '백의 천사'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11 '급제하다'는 '과거에 합격하다.' 혹은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하다.'라는 뜻으로, 이와 의미가 반대되는 말은 '과거 시험에 응하였다가 떨어지다.',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떨어지다.'를 뜻하는 '낙제하다'이다.

12 ㉠의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인데,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 오답 확인 |

- ①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한다.
- ②는 '키나 몸집 따위가 작은 사람.'을 뜻한다.
- ③, ④는 '도량이 좁고 간소한 사람.'을 뜻한다.

Day 15 어휘 플러스

본문 77쪽

1 ○ 2 ○

10 분 테스트

본문 78쪽

01 고역 02 속물적 03 얼굴 04 조심
05 마음 06 심심한 07 고대했다
08 환대하며 09 ② 10 ① 11 ③
12 ②

09 '심란하다'는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뜻으로, '느낌이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뒤숭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속속들이'는 '깊은 속까지 샅샅이.'라는 뜻으로,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을 가진 '미주알고주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1 '하릴없이'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라는 뜻으로,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라는 의미의 '속절없이'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2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노골적'이다.

Day 16 어휘 플러스

본문 81쪽

1 조렸다 2 졸였다

10 분 테스트

본문 82쪽

01 한사코 02 대거리 03 조바심
04 분부 05 기세 06 독촉
07 구제하는 08 배제했다 09 민첩한
10 부여했다 11 ① 12 ② 13 조려
14 졸여서 15 ③

11 '공연히'는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를 의미하므로 같은 의미를 가진 '괜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으레'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라는 의미이다.

12 '배웅하기'는 '떠나가는 손님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서 작별하여 보내기.'를 의미하므로, '마중하기'는 '배웅하기'의 반의어가 될 수 있다. '마중하다'는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다.'를 의미한다.

13 멸치와 고추로 반찬을 만드는 것은, 물의 분량을 적어지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국물에 재료를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한다는 의미의 '조리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빈칸에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여서.'의 의미를 가진 '조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국이 찌개 된 것은 국물의 분량을 너무 적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칸에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여서.’의 의미를 가진 ‘줄여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은 똥을 누고 똥을 종이로 달라는 토끼에게 자라가 종이가 없다면서 익살스럽게 대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해학적 표현은 웃음이 나오게 하므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학’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11~16
종합 문제
본문 84쪽

01 여긴다	02 안치셨다	03 나무라셨다	04 ⑤
05 ①	06 ③	07 ③	08 ①

04 ‘섬’은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 말이다. ⑤에서는 고등어와 같이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인 ‘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장작’을 ‘너’로 지칭하고 있기에 의인화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부정적 속성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확인 |

- ② ‘- 거야’와 같은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장작’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다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춤을 추듯’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장작’이 ‘한 줌 재’가 된 것은 ‘그 무엇도 되지 못’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화자는 그 상황을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06 ㉠의 ‘보내고’는 문맥상 집에서 나가는 손님을 따라 나가서 작별하여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떠나가는 손님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서 작별하여 보내고’를 의미하는 ‘배웅하고’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도사리고’는 ‘두 다리를 꼬부려 각각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무릎 아래에 괴고 앉고’를 의미한다.
- ② ‘마중하고’는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고’를 의미한다.

④ ‘배회하고’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를 의미한다.

⑤ ‘환영하고’는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고’를 의미한다.

07 ㉠은 물질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속물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속물적’은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것).’을 의미한다.

| 오답 확인 |

- ① ‘관념적’은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는(것).’을 의미한다.
- ② ‘동정적’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것).’을 의미한다.
- ④ ‘이상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것).’을 의미한다.
- ⑤ ‘자발적’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것).’을 의미한다.

08 ‘희색’의 사전적 의미는 ‘기뻐하는 얼굴빛’이다.

Day 17
어휘 플러스
본문 87쪽

1 며칠	2 며칠	3 며칠
-------------	-------------	-------------

10
본 테스트
본문 88쪽

01 장차	02 후환	03 태평성대	04 근심
05 발령	06 원인	07 객지	
08 신작로	09 ②	10 ①	11 ④
12 ①			

09 ‘별안간’은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을 의미하므로 ‘눈을 한 번 깜짝하거나 숨을 한 번 쉴 만한 아주 짧은 동안.’을 의미하는 ‘순식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초래하다’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의 의미인 ‘야기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1 ‘한-’은 ‘큰’의 뜻을 더하는 말로, ‘한길, 한직정, 한시름’과 같은 말에 쓰인다.

12 ‘동리’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므로 ‘마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Day 18 어휘 플러스

본문 91쪽

1 상공 2 낭군 3 성상

10 분 테스트

본문 92쪽

01 묘연하다 02 목전 03 수절 04 지금
05 조리 06 조금 07 지척 08 도리
09 총애 10 ② 11 ① 12 ②
13 ① 14 ②

10 '중적'은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을 의미하므로 '자취'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자취'는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의미한다.

11 '짐짓'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를 의미하므로 '일부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2 '계략'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의미하므로 '계책'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계책'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을 의미한다.

13 '흉한'은 '운이 사납거나 불길한.'을 의미하므로 반대말은 '길한'이 적절하다. '길한'은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로운.'을 의미한다.

14 '행여'는 '어쩌다가 혹시.'를 의미하므로 '혹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Day 19 어휘 플러스

본문 95쪽

1 담가 2 잠갔다 3 치르고

10 분 테스트

본문 96쪽

01 제삼자 02 파수꾼 03 하늘 04 선물
05 시야 06 궁리 07 적대적
08 담그는 09 ① 10 ① 11 진상
12 ①

09 '당도했을'은 '어떤 곳에 다다랐을.'을 의미하므로 '다다랐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달았을'은 잘못된 표기이다.

10 '경향'은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의미하므로 '성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성향'은 '성질에 따른 경향.'을 의미한다.

12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므로, '자긍심'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자긍심'은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의미한다.

17~19 종합 문제

본문 98쪽

01 문초하여 02 선사했다 03 부임한
04 다다른 05 ① 06 ⑤ 07 ④
08 ⑤ 09 ①

01 죄인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령이 한 일이므로 '문초하여'가 적절하다. '문초하여'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하여.'를 의미한다.

02 어제 본 연극이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는 의미이므로, '선사했다'가 적절하다. '선사했다'는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주었다.'를 의미한다.

03 '새로 발령받아 온 경찰청장'이라는 의미이므로, '부임한'이 적절하다. '부임한'은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간.'을 의미한다.

04 '나는 약속 장소에 이른 후'라는 의미이므로 '다다른'이 적절하다. '다다른'은 '목적한 곳에 이른'을 의미한다.

05 ①에서 '담귀'는 '담가'로 적어야 한다. '담그다'는 '액체 속에 넣다.' 또는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를 의미하며, '담그- + -아 → 담가'로 형태가 변한다.

06 ⑤에서 '상서로운'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을 의미한다. '운이 사납거나 불길한.'에 해당하는 것은 '흉한'이다.

07 ④의 '별안간'은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을 의미하므로 '갑자기'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오답 확인|

① '필경'은 '끝장에 가서는.'을 의미한다.

②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

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을 의미한다.

③ ‘필시’는 ‘아마도 틀림없이.’를 의미한다.

⑤ ‘별천지’는 ‘특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을 의미한다.

08 ㉠은 해룡을 집에 오래 두면 이로 말미암아 뒷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각각 ‘장차’와 ‘후환’(또는 ‘환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장차’는 ‘앞으로의 뜻으로,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며, ‘후환’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의미한다. ‘환란’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오답 확인 |

① ‘금년’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해.’를 의미하고, ‘질환’은 ‘몸의 온갖 병.’을 의미한다.

③ ‘일전’은 ‘며칠 전.’을 의미한다.

09 이 글에서 광풍이 눈을 쓸어버리는 것을 본 변 씨는 해룡의 신이한 능력에 놀라는 한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워 해룡을 해할 방법을 생각해 낸다. 따라서 빈칸에는 ‘계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계략’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의미한다.

| 오답 확인 |

② ‘벌미’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을 의미한다.

③ ‘기만’은 ‘남을 속여 넘김.’을 의미한다.

④ ‘가약’은 ‘아름다운 약속.’을 의미한다.

⑤ ‘조리’는 ‘말이나 글 또는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의미한다.

12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준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표정, 시선, 자세, 몸짓 등이 있다.

Day 21 10분 테스트

본문 108쪽

01 홍보물	02 양식	03 재연	04 솟
05 스토리보드	06 자막	07 재현한	
08 배제해야	09 복합	10 ④	11 ③

10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대상이나 사실, 현상을 재현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은 연중에 반영하여 메시지를 강화하고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도 한다.

12 ‘은연중’은 ‘남이 모르는 가운데.’를 뜻한다.

Day 22 10분 테스트

본문 114쪽

01 음절	02 울림소리	03 음운	
04 스스로	05 사랑	06 쓸모	
07 전설 모음	08 중모음	09 평순 모음	10 의지
11 형상	12 창제	13 ㉮	

13 국어의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원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끌어다 쓰는 ‘직접 인용’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만 끌어다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간접 인용’이(㉡) 있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피동 표현’이다(㉢).

3 듣기·말하기, 매체, 문법

Day 20 10분 테스트

본문 104쪽

01 청중	02 말하기 불안	03 발표	
04 조직	05 재구성	06 공감하는	
07 진술한	08 포용하는	09 거부	10 거짓
11 준언어적	12 비언어적	13 ③	

11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말의 높낮이와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등이 있다.

20~22 종합 문제

본문 116쪽

01 청중	02 초점	03 선입관	
04 지시하는	05 조직하는	06 공감하지	
07 진술하게	08 ⑤	09 ②	10 ⑤
11 유기견이 민수에게 구조되었다.			

08 ‘창제’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므로, 기존의 것을 재해석해 만드는 것은 ‘창제’라 할 수 없다.

| 오답 확인 |

- ① ‘실질적 쓸모를 중시함.’을 ‘실용’이라고 한다.
- ② ‘백성을 사랑함.’을 ‘애민’이라고 한다.
- ③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정신.’을 ‘자주 정신’이라고 한다.
- ④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문자를 만드는 원리.’를 ‘상형의 원리’라고 한다.

09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표현한다. 피동 표현이 실현되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난다.

10 ‘명확하다’와 ‘불명확하다’는 의미가 반대인 관계이다. ‘포용하다’는 ‘남을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 ‘배척하다’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다.’를 뜻하므로 의미가 반대인 관계이다.

11 능동 표현의 목적어인 ‘유기전’이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면서 조사가 바뀌었으며, 명사 ‘구조’ 뒤에 ‘-되다’가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07 ‘뼈에 사무치다’는 ‘원한이나 고통 따위가 뺏속에 파고들 정도로 깊고 강하다.’를 뜻하므로 적절하다.

12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보다.’를 뜻하는 ‘눈을 씻고 보다’가 가장 적절하다.

13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를 뜻하는 ‘얼굴이 두껍다’가 가장 적절하다.

14 ‘굴지 않고 겨우 살아간다.’를 뜻하는 ‘목구멍에 풀칠을 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Day **24** 10분 테스트

본문 128쪽

01 ㉠	02 ㉡	03 ㉢	04 말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05 ‘지는 게 이기는 거다’는 ‘맞설 형편이 못 되는 아주 수준이 어린 상대한테 옥신각신 시비를 가리기보다 아랑 있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06 ‘앞길에 구만리 같다’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07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생각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에 해당하는 속담은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등이 있다.

12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가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③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굵어 부스럼)

13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고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도록 하라는 말.’인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가 적절하다.

14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공연히 의논함.’를 뜻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적절하다.

4 관용어, 속담, 한자 성어

Day **23** 10분 테스트

본문 12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05 ‘속이 뒤집히다’는 ‘몹시 아니꼽게 느껴지다.’를 뜻하므로 적절하다.

06 ‘꿈인지 생시인지’에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밖에 이뤄져 꿈처럼 여겨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에 부닥쳐 어찌할 바모를 때를 이르는 말.’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Day 25 10분 테스트

본문 132쪽

- | | | | |
|---------|---------|---------|------|
| 01 ㉠ | 02 ㉡ | 03 ㉢ | 04 ㉣ |
| 05 아비규환 | 06 삼삼오오 | 07 갑론을박 | |
| 08 청산유수 | 09 ㉤ | 10 ㉥ | 11 ㉦ |
| 12 ㉧ | | | |

09 ‘품은 생각을 내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을 뜻하는 ‘허심탄회’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허랑방탕’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② ‘허무맹랑’은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④ ‘허장성세’는 ‘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⑤ ‘허허실실’은 ‘허를 찌르고 실을 꺾는 계책.’을 의미하는 말이다.

10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을 뜻하는 ‘횡설수설’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꺾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② ‘유구무언’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한.’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③ ‘일구이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④ ‘함구무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11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은 ‘마이동풍’이다.

| 오답 확인 |

- ① ‘강산풍월’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③ ‘북풍한설’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차가운 눈.’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④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⑤ ‘풍전등화’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또는 ‘사물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굽이굽이 서린 창자란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구곡간장’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②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④ ‘구세제민’은 ‘더러운 세상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23~25 종합 문제

본문 134쪽

- | | | | |
|-------------|-------------|---------|------|
| 01 ㉠ | 02 ㉡ | 03 ㉢ | 04 ㉣ |
| 05 고양이 | 06 하늘 | 07 세월 | 08 ㉤ |
| 09 눈살을 찌푸리며 | 10 더위를 먹음 | | |
| 11 손이 커서 | 12 눈 깜짝할 사이 | 13 ㉥ | |
| 14 구절양장 | 15 횡설수설 | 16 역지사지 | |
| 17 작심삼일 | 18 ㉦ | 19 ㉧ | 20 ㉨ |

08 ‘우문우답’이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대답.’을 뜻하는 말이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뜻하는 말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이다.

1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강한 자들끼리의 싸움에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 아니다.

18 변 씨가 해룽을 없앨 방안을 궁리하는 내용이므로,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하다.’를 뜻하는 ‘머리를 굴리다’가 가장 적절하다.

19 해룽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 대응하는 내용이므로,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살아 나갈 방법이 생긴다는 말.’인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가 가장 적절하다.

20 해룽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을 고비를 연달아 넘기고 목숨을 지켜내는 내용이므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인 ‘구사일생’이 가장 적절하다.



워크북

Day 01

워크북 2쪽

01 가락	02 전체	03 현상	04 문학
05 물건	06 기재	07 ②	08 ①
09 ②	10 학술	11 동적	12 야만
13 ③	14 근거		

08 ‘근본’은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뜻하므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뜻하는 ‘본질’과 바꾸어 쓸 수 있다.

13 ‘남독’은 ‘책의 내용이나 수준 따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마구 읽음.’을 뜻하는 말이다.

Day 02

워크북 4쪽

01 가격	02 재화	03 상품	04 물건
05 재원	06 희소성	07 친환경	08 ④
09 ②	10 ①	11 지불	
12 마케팅	13 중요한 문서에는 사장님의 결재가 꼭 필요합니다.		

08 ④의 ‘폐기하다’는 ‘조약, 법령, 약속 따위를 무효로 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09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하다.’를 뜻하는 ‘책정하다’가 적절하다.

10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을 뜻하는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

12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등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하기 위한 모든 기획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13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는 단어는 ‘결재’이다. ‘결제’

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말한다.

Day 03

워크북 6쪽

01 입양	02 계층	03 이력	04 ㉠
05 ㉡	06 ㉢	07 책임	08 목적
09 도용	10 전환	11 ○	12 ×
13 ×	14 ⑤	15 ③	

12, 13 ㉠은 ‘공인(公認)’ ㉡은 ‘공인(公人)’이다.

14 ⑤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값으로 내는 돈을 말하므로 ‘과태료’가 아닌 ‘이용료’, ‘통행료’ 등이 적절하다.

15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한다.

Day 04

워크북 8쪽

01 ㉠	02 ㉡	03 ㉢	04 자책
05 우울감	06 성취감	07 무력감	08 아름
09 내향적	10 ②	11 ②	

10 ‘각성’이 ‘깨어 정신을 차림’의 뜻으로 쓰인 것은 ②이다. 나머지는 ‘깨달아 앎.’의 뜻으로 쓰였다.

Day 05

워크북 10쪽

01 이치	02 생각	03 변화	04 ㉠
05 ㉡	06 ㉢	07 고의적	08 개발
09 권위	10 신념	11 ①	
12 비판적	13 직관적	14 위신	15 맹신
16 ①			

08 낙후 지역을 관광지로 만든다는 내용이므로,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을 뜻하는 ‘개발’이 적절하다.

09 국가 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의 힘을 따르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므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하는 ‘권위’가 적절하다.

10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신념’이 적절하다.

11 ‘우발적’은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을 뜻하며, ‘일부러 하는.’을 뜻하는 ‘고의적’과 뜻이 반대되는 단어이다.

Day 06

워크북 12쪽

01 액체	02 지표	03 용암	04 분출
05 감염	06 배출	07 피지	08 전파
09 ④	10 ②	11 노폐물	
12 반사적	13 ⑤	14 자원	

05 ‘감염’은 ‘나쁜 버릇이나 풍습, 사상 따위가 영향을 주어 물이 들게 함.’,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나 파일 따위에 들어오는 일.’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08 ‘전파’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이라는 의미로, 그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문물이 전해지고 퍼지는 것이 늦었다는 의미이다.

11 과도한 운동은 근육내에 ‘생체 내에서 생산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피로감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노폐물은 날숨, 오줌, 땀, 대변 따위에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설된다.

|오답 확인|

• 폐기물: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

12 ‘반사적’은 ‘어떤 자극에 순간적으로 무의식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어머니가 위험한 순간에 아이를 먼저 감싸 안는 행동은 의식적 행동이 아닌, 반사적 행동이다.

13 ①~④의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을 의미하지만, ⑤의 ‘염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을 의미한다.

14 ‘자원’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Day 07

워크북 14쪽

01 식생	02 천적	03 맹금류	04 복원
05 조망	06 절경	07 생태	
08 악순환	09 훼손되는	10 ②	11 ①

04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함.’을 의미하므로, 불타 없어졌거나 파괴된 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복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을,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을 의미한다.

09 ‘훼손되다’는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되다.’, ‘헐리거나 깨져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쓰이고 있다. ‘파손되다’는 ‘깨어져 못 쓰게 되다.’를 의미한다.

10 ②의 ‘녹지’는 ‘천연적으로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의미하지만 나머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을 의미한다.

11 이 글은 도시의 가로수는 건조에 취약하여 건조에 강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하는데 이러한 수종은 잔뿌리가 땅 표면 가까이에 퍼져 자라기 때문에 적은 강우량에도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는 ‘건조’, ㉡에는 ‘분포’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Day 08

워크북 16쪽

01 악의적	02 상대적	03 누진적	04 개량
05 ㉠	06 ㉡	07 ㉢	08 ㉣
09 ①	10 완화	11 두터워서	
12 충족해	13 ④	14 상쇄	

05 ‘유출되다’는 ‘밖으로 흘러 나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의 문장에서 ‘유출되었다’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06 ‘저하되다’는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지다.’의 의미이므로, ㉡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와 같이 쓰일 수 있다.

07 ‘적치하다’는 ‘쌓아 두다.’의 의미이므로, ㉢에서 ‘자동차를 적치하였다.’와 같이 쓰일 수 있다.

08 ‘존속되다’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

속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㉔에서 ‘백 년도 넘게 무역의 중심지로 존속되었다.’와 같이 쓰일 수 있다.

09 ‘궁극적’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10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을 의미하며, ‘규제 완화’와 같은 표현이 흔히 쓰인다.

11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라는 의미로, ‘우애가 두텁다.’라는 표현이 흔히 쓰인다. ‘두껍다’는 주로 물리적인 두께를 말할 때 사용한다.

12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13 ‘이례적’은 ‘보통 있는 일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을 의미한다. ㉔에서 ‘커피는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장에 쓰인 ‘이례적’은 ‘일상적’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

14 ‘상쇄’는 ‘상반되는 것에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이라는 의미로 어떤 효과나 영향을 다른 것으로 중화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Day 09

워크북 18쪽

01 힘	02 위상, 거리	03 파동, 반대	04 방출
05 파장	06 입자	07 변환	08 지수
09 ㉔	10 ㉔	11 수행하기	
12 해독하면	13 ㉔: 통신, ㉔: 식별		

09 ‘이정표’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의 의미이므로,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라는 의미의 지표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판독하다’는 ‘어려운 문장이나 암호, 고문서 따위를 뜻을 헤아리며 읽다.’의 의미이다.

| 오답 확인 |

㉔ 묵독하다: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글을 읽다.

㉔ 통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다.

11 ‘수행하다’는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를 의미하고, ‘강행하다’는 ‘강제로 시행하다.’를, ‘단행하다’는 ‘결단하여 실행하다.’를 의미한다.

12 ‘해독하다’는 ‘어려운 문구 따위를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하다.’, ‘잘 알 수 없는 암호나 기호 따위를 읽어서 풀다.’를 의미하므로, 블랙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은 ‘해독하다’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Day 10

워크북 20쪽

01 논증	02 연역	03 ○	04 ×
05 ×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분석	12 예시
13 구분	14 비교	15 인과	16 정의
17 연역	18 우열	19 귀납	

20 반려동물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려동물이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04 제시된 설명은 ‘분석’에 해당한다.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05 ‘삼단 논법’은 연역 논증의 대표적 방식이다.

11 원자의 구성 요소를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해당한다.

12 각 나라 전통 의상 중에서 인도, 일본, 중국의 전통 의상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시’에 해당한다.

13 지분을 재료를 기준으로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에 해당한다.

14 그래프와 도표의 공통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에 해당한다.

15 ‘해수 온도의 상승’이라는 원인은 ‘태풍의 발생’이라는 결과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16 미세 먼지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18 (가)의 글에서 대전제는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소전제는 ‘힌두교 신자들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유대교 신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음식 문화이다.’가 된다. 이러한 두 전제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론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음식 문화 역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19 (나)의 글은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반려동물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러한 사례

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나타나고 있다.

20 (나)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은 ‘반려동물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Day **11** 워크북 22쪽

01 타박상	02 모양	03 임	04 매지
05 ○	06 ×	07 호미	08 김
09 산버들	10 백골	11 ⑤	
12 탐관오리, 가렴주구			

11 〈보기〉의 ‘치달다’는 ‘생각, 감정 따위가 치밀어 오르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나머지는 ‘위쪽으로 달리다. 또는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다.’의 뜻으로 쓰였다.

12 각각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뜻하는 ‘탐관오리’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뜻하는 ‘가렴주구’가 적절하다.

Day **12** 워크북 24쪽

01 ㉠	02 ㉡	03 ㉢	04 외지
05 꾸중	06 단비	07 경이	08 감동
09 나무라지	10 윗목	11 암초	12 소감
13 외세	14 ①	15 ②	16 ②

04 ‘자기가 사는 곳 밖의 다른 고장.’을 뜻하는 ‘외지’가 적절하다.

05 어른들에게 버릇없게 군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나무라다.’를 뜻하는 ‘꾸중하다’가 적절하다.

06 가뭄에 반가운 존재이므로,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 ‘단비’가 적절하다.

07 서커스 공연의 신기한 묘기에 대한 묘사이므로, ‘놀랍고 신기하게 여김. 또는 그럴 만한 일.’을 뜻하는 ‘경이’가 적절하다.

16 ②의 ‘불모’는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는 상태.’의 의미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의 뜻으로 쓰였다.

Day **13** 워크북 26쪽

01 시적 상황	02 시점	03 서술자
04 (1) ㉠ (2) ㉡ (3) ㉢	05 주제	
06 우의적	07 배경	08 인물
09 (1) 첫사랑 (2) 역설적	10 (1) × (2) ○	
11 (가)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고, (나)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06 우화 소설은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의인화하여 쓴 소설로,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띤다. 우의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전하려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표현 방식인 우의적 기법이 사용된다.

09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는 ‘아름다운’과 ‘상처’라는 서로 모순된 두 시어의 결합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역설은 겉으로 보면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진술이지만 잘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10 (1)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며, 인물의 속마음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 이 글에서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홀륭하기만 하구나.’는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 반어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대상을 비꼬아 비판하고 있다.

11 (가)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인 1인칭 시점이고, (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3인칭 시점이다.

Day 14

워크북 28쪽

01 제삿날	02 벼슬	03 강제	04 터
05 곡식	06 흙바닥	07 근	08 푼
09 ③	10 ②	11 ①	12 ④
13 낙제한	14 소인	15 단위	

07 무게의 단위는 ‘근’이다. ‘섬’은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 부피의 단위이다.

08 돈을 세는 단위는 ‘푼’이다. ‘점’은 그림, 옷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11 ‘관아’는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의 의미로, 같은 뜻의 ‘관사’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4 그는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소인’이 적절하다.

Day 15

워크북 30쪽

01 심란했다	02 미심쩍다	03 침통한	04 기색
05 천성	06 고역	07 환심	
08 하릴없이	09 ⑤	10 노골적	
11 인색하게			

04 ‘기색’은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을 의미하므로 빈칸에 ‘기색’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고착’은 심리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한,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근성’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을 의미한다.

05 그녀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정직하다는 의미이므로 ‘천성’이 적절하다.

06 모기가 많은 것은 힘든 일이므로 빈칸에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고역’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최대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의 기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빈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환심’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그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하릴없이’가 적절하다.

09 ‘두려워했다’는 ‘꺼려 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이므로 ‘몹시 두려워서 별별 떨며 조심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전긍긍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오답 확인 |

① 질책하다: 꾸짖어 나무라다.

② 반색하다: 매우 반가워하다.

③ 의연하다: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④ 당연시하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10 수업 시간에 기철이가 낸 의견에 대해 지훈이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 상황으로,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노골적’이다.

11 이 글에서 딸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서츠를 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경다리를 고칠 정도의 돈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딸의 모습은 ‘인색하게’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Day 16

워크북 32쪽

01 기세	02 기	03 까닭	04 구제
05 분부	06 대거리	07 조바심	
08 한사코	09 ②	10 ②	11 ①
12 ②	13 ④		

08 내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기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한사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사코’는 ‘죽기로 기를 쓰고.’를 의미한다.

09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돈어른을 모셔 올 것을 지시하셨다는 의미이므로, ‘지시하셨다’가 적절하다.

10 그는 선반에서 떨어지는 바구니를 재빠르고 날쌔게 잡았다는 의미이므로 ‘재빠르게’가 적절하다.

11 그는 아무 까닭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괜히’가 적절하다.

12 첫 문장은 알레르기가 다양한 증상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유발’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물리쳐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배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부여하다’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④에서 입사 지원서에 자기소개서를 덧붙이는 상황에서는 ‘부여하도록’이 아닌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이도록’을 의미하는 ‘첨부하도록’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Day 17

워크북 34쪽

- | | | | |
|---------|----------|---------|-------|
| 01 짧은 | 02 원인 | 03 근무 | |
| 04 초래했다 | 05 매복하도록 | 06 제수하니 | |
| 07 도화선 | 08 침소 | 09 객지 | 10 질환 |
| 11 ② | 12 ① | 13 며칠 | 14 며칠 |
| 15 태평성대 | | | |

11 ‘앞으로’는 ‘장차’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장차’는 ‘앞으로의 뜻으로,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12 ‘원님’은 ‘수령’을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수령’과 바꾸어 쓸 수 있다.

13, 14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27항)에 따라 ‘몇 일’로 적지 않고 ‘며칠’로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며칠 동안’, ‘며칠이지?’로 적어야 한다.

15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는 ‘태평성대’이다.

Day 18

워크북 36쪽

- | | | | |
|--------------------|---------|-------|-------|
| 01 예전 | 02 일부러 | 03 임금 | 04 이치 |
| 05 총애 | 06 동서고금 | 07 종적 | 08 수절 |
| 09 ⑤ | 10 ⑤ | 11 ⑤ | 12 ④ |
| 13 (1) 행여 (2) 길하도록 | | | |

09 ‘길한’은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로운.’을 의미하므로 ‘상서로운’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상서로운’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 어날 조짐이 있는.’을 의미한다.

10 ‘천고’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의미한다.

11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의미한다.

12 ‘추호’는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④에서와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쓸 수 있다.

|오답 확인|

① ‘추호’가 아닌 ‘추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추이’는 ‘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을 의미한다.

② ‘추호’가 아닌 ‘추상’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추상’은 ‘가을의 찬 서리.’라는 의미로, 꾸중 따위가 기세등등하고 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추호’가 아닌 ‘주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을 의미한다.

⑤ ‘추호’가 아닌 ‘추종’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추종’은 ‘남의 뒤를 따라서 좇음.’을 의미한다.

13 (1) ‘행여’는 ‘어쩌다가 혹시.’를 의미한다.

(2) ‘흉하도록’은 ‘운이 사납거나 불길하도록.’를 의미하므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롭도록.’를 의미하는 ‘길하도록’이다.

Day 19

워크북 38쪽

- | | | | |
|--------|--------|---------|-------|
| 01 목적 | 02 거짓 | 03 적, 적 | 04 시야 |
| 05 성향 | 06 적대적 | 07 식견 | |
| 08 파수꾼 | 09 ① | 10 ② | 11 ① |
| 12 치르고 | 13 담가서 | 14 잠그는 | |
| 15 구만리 | | | |

09 ‘숙고’는 ‘곰곰 잘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므로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궁리’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궁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을 의미하므로 ‘자부심’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11 ‘선물했다’는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주었다.’를 의미하는 ‘선사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2 ‘치르다’는 ‘무슨 일을 겪어 내다.’ 등을 의미한다. ‘치루다’로 잘못 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3 ‘담그다’는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의 의미이다. ‘담그-+-아서 → 담가서’로 형태가 변화한다. 기본형을 ‘담구다’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4 ‘잠그다’는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를 의미한다. 기본형을 ‘잠구다’로 잘못 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5 ‘장천’은 ‘끝없이 잇닿아 멀고도 넓은 하늘.’을 의미하고, 유의어인 ‘구만리장천’은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을 의미한다.

Day **20**
워크북 40쪽

01 글, 말	02 말투, 어조	03 몸짓, 자세	04 청중
05 포용할	06 조직할	07 진술할	
08 배척하는	09 ③	10 ③	11 요약
12 공감	13 조정하는	14 말하기 불안	

04 ‘청중’은 ‘강연이나 설교, 음악 따위를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05 마음이 넓지 않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를 뜻하는 ‘포용하다’가 적절하다.

06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한 내용이므로, ‘짜서 이루거나 엮어서 만드는 것.’을 뜻하는 ‘조직하다’가 적절하다.

07 스스로없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은 대화이므로, ‘진실하고 솔직하다.’를 뜻하는 ‘진술하다’가 적절하다.

08 다른 부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다.’를 뜻하는 ‘배척하다’가 적절하다.

09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를 뜻하는 ‘진실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10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를 뜻하는 ‘수용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Day **21**
워크북 42쪽

01 남	02 복합	03 결합	04 초점
05 양식	06 의도적	07 광고	08 자막
09 ①	10 ③	11 효과음	12 앵글
13 내레이션	14 스토리보드	15 비판적	

09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의 뜻을 지닌 ‘배제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10 ‘다시 나타나다. 또는 다시 나타나다.’의 뜻을 지닌 ‘재현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Day **22**
워크북 44쪽

01 발음	02 소리	03 음성	04 주체
05 울림소리	06 이중 모음	07 자음	08 모음
09 반포했다	10 자주적으로	11 상형의	12 인용
13 종결	14 지시	15 가, 예게, 히었(했)	

09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다.’의 뜻을 지닌 ‘반포하다’가 적절하다.

10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자주’라고 한다.

14 능동 표현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능동 표현의 목적어인 ‘쥐’가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고, 이에 따라 조사가 바뀌게 된다. 또한 서술어 ‘잡았다’에 ‘-히-’가 붙어 ‘잡히었다(잡혔다)’가 된다.

Day **23**
워크북 46쪽

01 눈 깜짝할 사이	02 무릎을 마주하다		
03 등골이 서늘하다	04 파김치 되다		
05 귀 기울이다	06 가슴 찢다		
07 ②	08 ④	09 ②	10 김
11 간장	12 뼈	13 ②	14 ④

07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의 뜻인 ‘머리를 싸매다’가 가장 적절하다.

08 ‘몹시 괴롭거나 애가 타다.’의 뜻인 ‘피가 마르다’가 가장 적절하다.

09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다.’의 뜻인 ‘허울 좋다’가 가장 적절하다.

14 ‘얼굴이 비치다’는 ‘모임 따위에 모습을 나타내다.’의 뜻이므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흥부가 잘된 것이 부럽고 못마땅한 놀부의 심정을 표현하는 데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심술이 나고 속이 상하다.’를 뜻하는 ‘배가 아프다’ 혹은 ‘몹시 아니꼽게 느껴지다.’를 뜻하는 ‘속(이) 뒤집히다’ 등이 더 적절하다.

Day **24**
워크북 48쪽

01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곱다고 한다

02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03 가재는 게 편 **04**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05 ⑤ **06** ② **07** 씨

08 외양간 **09** 떡 **10** ④

11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1 ‘도토리 키 재기’는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다툼.’ 혹은 ‘비슷비슷해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의 뜻이므로, 가장 크고 건강한 쥐가 고양이와 자신의 힘 차이를 비교하며 방울 달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 아니다. 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나 너무 강한 상대여서 맞서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등의 속담이 적절하다.

06 ‘소의 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 ‘우이독경’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① 닭의 주둥이보다는 소의 꼬리라는 뜻.
- ②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말.
- ③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털 한 가닥이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것을 가리키는 말.
- 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냄.

07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을 뜻하는 말인 ‘허심탄회’가 가장 적절하다.

08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 ‘작심삼일’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 ④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했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 09** ‘구절양장(九折羊腸)’은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란 뜻으로,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이르는 말.’이므로 ‘험하게 꼬부라졌다’가 가장 적절하다.
- 10**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의 뜻이므로 ‘입장을 바꾸어서’가 가장 적절하다.
- 11** ‘중구난방(衆口難防)’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므로 ‘여럿이 마구 지껄이고’가 적절하다.
- 12** ‘설왕설래’는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욕심각심함. 또는 말이 오고 감.’이란 뜻이다. ㉠에는 장사꾼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의 뜻, 즉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함을 이르는 한자 성어 ‘유구무언(有口無言)’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함을 뜻하는 ‘꿀 먹은 병어리’와 같은 속담이 어울린다.

Day **25**
워크북 50쪽

01 탁상공론 **02** 횡설수설 **03** 구사일생

04 구곡간장 **05** 아비규환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